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박대식* 마상진**

Keywords

삶의 질(quality of life), 측정(measurement), 주관적 지표(subjective indicator), 지수화(index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dex of quality of life, which could be used to review the changes in an index of rural residents compared to that of urban residen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related literature reviews on the quality of life and indexation methods, and surveyed 40 experts for the selection and validation of specific items and for the decision of the weighting values. In addition, the study surveyed 2,000 rural and urban residents for the validation of the index and comparing the index of rural residents with that of urban residents.

As a result, an index of quality of life was developed. The index consisted of the following 19 indicators including income, consumption, job, health, medical services, safety, basic living, housing, communication facilities, public transportation, amenities, public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school educational opportunity, welfare system, social welfare service, neighborhood, family life, and leisure. The each indicator was measured by subjective satisfaction questionnaires. The 19 indicators were endowed with weighted values; for instance, 0.136 for income, 0.121 for consumption, 0.068 for health, and so forth. The index of quality of life of total residents was 49.26, while the index of rural residents was 47.58, a lower figure than the comparable figure of 53.17 for urban residents.

차례

- | | |
|-----------|----------|
| 1. 서론 | 4. 연구 결과 |
| 2. 이론적 고찰 | 5. 결론 |
| 3. 연구 방법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문제가 학문적·정책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범죄문제, 환경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경제적 여건의 향상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리와 행복을 당연히 증진시켜 줄 것이라는 종래의 가정에 회의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경제지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사회지표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Sirgy et al., 2006). 이러한 사회지표들은 사회적 복지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개발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학문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삶의 질 연구는 학술적 차원보다는 경제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라는 성격이 강했으며 객관적 지표의 설정과 수집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의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외형적인 발전과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삶의 질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 사이에서 이제 양적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지표나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국민 또는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농촌 또는 농촌주민/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시·농촌을 비교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삶의 질 관련 지표들도 주로 전국 단위 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도시 위주로 설정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련 자료로는 「농가경제통계연보」, 「농업총조사」, 「농림업 주요통계」, 「농촌생활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등이 있으나 각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농가경제통계연보」 및 「농업총조사」, 「농림업 주요통계」에

서는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생활지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문제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복지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농촌과 농촌주민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최근 농촌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농외소득 기회의 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 증대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농촌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농촌복지의 획기적 개선대책 없이는 농업의 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촌의 교육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낮으며,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 한편, 농촌복지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효율성이 낮았다.

이런 이유로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촌복지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고, 2005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농산어촌 복합 산업 활성화 등이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정부의 15개 부처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부족하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수월하고 시계열별·도농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며 정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지수화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삶의 질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표에 한정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정의는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객관적 관점의 정의, 주관적 관점의 정의, 통합적 관점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간의 만족스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정의들이 있다. Schneider(1976)는 삶의 질을 ‘개인 또는 사회조직이 경험하는 직접적 복지’로 보았다. Sirgy(1986)는 Maslow의 인성발전이론을 빌려와 사회학적 제도(institution)의 개념에 접합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정의하였는데, 한 사회의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욕구만족의 양이 크면 클수록 높아진다고 보았다. 즉, 그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욕구에는 위계가 있다고 보고 삶의 질 추구가 그 사회의 제도에 의하여 강화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nkeles(1993)는 삶의 질을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또는 경제수준의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하혜수(1996)는 삶의 질을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조건’으로 보았다.

객관적 관점의 정의와는 달리 삶의 질을 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만족감에 한정시켜,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규범적인 가치와 아울러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정의들이 있다. 이는 삶의 질을 자아의 내부에서 찾고 그것을 만족도 또는 행복도의 차원으로 양화하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자아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인식의 소리라고 본다. 신도철(1981)은 삶의 질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의 성취에 따른 물리적 상태와 이를 통해 얻어지는 복지와 즐거움에 대한 주관적 만족’으로 보았고, Schuessler와 Fisher(1985)는 삶의 질이란 타인과 상호작용에 따른 자기평가에 근거한 자기존중감이라고 보았다. 한표환 외(1995)는 삶의 질을 개인적인 주관적 만족도 또는 행복감으로 보았으며, 김상균 외(1996)는 삶의 질을 주관적 만족감의 총량으로 보았다.

한편, 삶의 질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성장,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과 같은 외형적인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내면적 심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 통합적 관점도 있다. 이는 삶의 질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며 물질적인 측면과 아울러 복지나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본다. 임희섭(1996)은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차원이나 변수들을 이용하여 개념적 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객관적 조건은 주관적 만족에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체계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균(1997)은 삶의 질을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경제·문화·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하였고, 소진광(1998)은 삶의 질을 ‘삶의 주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삶의 가치이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여러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객관적 요소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변하는 상황조건의 질을 의미하고,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인 안녕, 개인의 발전, 성장 등을 대변하는 인간의 질을 의미한다. 즉, 삶의 질은 객관적인 상황조건과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이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2.2.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삶의 질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삶의 질의 영역 분류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중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조사된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1979년에 최초로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공표된 이래 매년 작성되고 있는데, 지표의 수는 1980년 151개, 1990년 262개, 2000년 531개, 2006년 489개로 나타났다. 2006년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13개 부문(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정부·사회참여)으로 구성되었다.

신도철(1981)은 “한국인의 삶의 질 대 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에서 주관적 지표를 이용하여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심영역을 주택, 이웃, 재정문제, 결혼문제, 자녀교육, 집안일, 친우관계, 여가활동, 자신의 교육, 직업, 정부 등으로 구분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1994년도에 “농촌생활지표”를 처음 발간한 이래로 1999~2006년 기간 동안에 총 여섯 차례 발간하였다. 1994년 및 1999년의 농촌생활지표는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생활과 관련된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재분

류하여 작성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지표항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5년 농촌생활지표(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는 인구, 사회참여, 영양 및 건강생활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관심영역을 45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434개의 개별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총 455개의 통계표를 수록하고 있다.

표 1. 삶의 질 관련 국내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지표)명	삶의 질 영역
통계청 (1979~)	한국의 사회지표	인구,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 참여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주관적 지표)	주택, 이웃, 재정문제, 결혼문제, 자녀교육, 집안일, 친우관계, 여가활동, 자신의 교육, 직업, 정부 등
김동일 외 (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가족, 계층, 경제생활과 생활수준, 교육 및 의료
하재구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가정생활, 주거생활, 건강상태, 교육기관, 직장활동, 저축 및 자금 활동, 이웃 및 친족관계, 여가시간의 활용, 인구증가, 환경·교통·생활편의시설, 전쟁 불안, 정부와의 관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994~)	농촌생활지표	인구 및 사회, 식생활, 건강생활, 주거 및 환경, 생산 및 소비, 교육, 여가생활, 가족생활, 사회복지, 지역개발 및 정보화
중앙일보 (1995, 1997)	전국 74개 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보건·의료 부문, 경제 부문, 교육 부문, 문화·정보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소득, 보건, 교육, 노동, 문화·정보, 형평
박대식·이영대 (1997)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소득 및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및 여가, 환경, 사회, 복지, 정보 및 통신, 안전
임경수·김재익 (1998)	수도권 신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안전한 생활, 쾌적한 생활, 편리한 생활, 경제생활, 학교 및 사회교육, 문화 및 정보생활
안지민·최외출 (2001)	자치단체의 삶의 질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편리한 생활, 쾌적한 생활, 사회생활, 자아실현생활
박승희 (2002)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	정서적 안녕과 만족,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 개인의 수행과 발달, 신체적 안녕,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통합, 권리
박대식·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정명숙 (2005)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신체영역 만족도, 물질영역 만족도, 사회영역 만족도, 생산영역 만족도

중앙일보사(1995, 1997)는 “전국 74개 시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에서 전국 74개 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의 평가항목은 6개 영역(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 교육복지, 경제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에서 36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서열을 보여 주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은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관심영역 및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의한 삶의 질 측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계 174개국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부문별 및 전 부문 종합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을 보건·의료 부문, 경제 부문, 교육 부문, 문화·정보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삶의 질’의 국제비교를 제시하였다.

박대식과 이영대(1997)는 “농촌 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 복지지표 관련 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 복지지표체계의 시안을 마련하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고, 농촌 복지지표를 개선·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 농촌 복지지표체계(시안)는 소득 및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문화 및 여가, 환경, 사회, 복지, 정보 및 통신, 안전 등 총 12개 부문, 35개 관심영역, 74개 세부관심영역, 136개 개별지표로 구성되었다.

박대식과 최경환(2002)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7개 부문(경제적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안정된 삶, 즐기는 삶) 총 87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삶의 질 관련 외국의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외국의 연구는 국가별 연구와 국제기구에 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선진 각국의 삶의 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상공부에서 1980년에 발표한 미국의 사회지표체계(Social Indicators III)는 미국 사회의 당시 상태와 다가올 변화의 성격을 알려 주는 주요 추세 및 발전을 서술하고 있는데, 삶의 질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인구·가족, 건강·영양, 주거·환경, 교통, 공안, 교육·훈련, 사회참여, 문화·여가·시간이용, 노동,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의 1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58개의 세부 목표영역으로 이루어졌다.

Marans와 Dillman(1980)은 「미국농촌의 삶의 질의 인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삶의 질의 영역별 관심 사항을 13가지(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질(전반적인 만족도 및 평가),

전반적인 이웃의 질,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 도로와 통행로, 공공의 안전과 경찰, 소방, 쓰레기 처리, 공원과 여가, 대중교통, 공립학교, 건강, 일반적인 생활편의시설, 공해)로 제시하였다.

표 2. 삶의 질 관련 외국 주요 연구

연구자 (연구년도)	연구(지표체계)명	삶의 질 영역
미국 Department and Bureau of Census(1980)	Social Indicators III	인구·가족, 건강·영양, 주거·환경, 교통, 공안, 교육·훈련, 사회참여, 문화·여가·시간이용, 노동, 사회보장과 복지, 소득과 생산성
미국 Marans & Dillman(1980)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Rural America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질(전반적인 만족도 및 평가), 전반적인 이웃의 질, 이웃 간의 사생활 보호, 도로와 통행로, 공공의 안전과 경찰, 소방, 쓰레기 처리, 공원과 여가, 대중교통, 공립학교, 건강, 일반적인 생활편의시설, 공해
미국 Campbell(1981)	The Sense of Well-being	높은 지위의 향유, 결혼상황, 가족과 친구의 소유, 일거리의 소유, 취업여성의 존재, 주거장소, 미국에서의 생활, 수명, 개인의 특성과 자아감각
일본 총무성 통계국 (1976~)	사회생활통계지표,	자연환경, 인구·세대, 경제기반, 재정, 학교교육, 노동, 가계, 사회교육·문화·스포츠, 거주환경, 사회보장, 건강·의료, 안전, 생활시간의 배분
일본 경제기획청 (2003~)	삶의 개혁지수	살기 좋은 사회, 일하기 좋은 사회, 배우기 좋은 사회,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 고령자가 활기 있게 사는 사회, 정보나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환경 친화적인 사회,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
독일 Department of Social Indicators (1978~)	Socio-political Decision and Indicators	인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관적 계급 인식, 노동시장 및 근로생활, 소득 및 소득분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 교통, 주택, 교육, 건강, 참여, 환경, 공안 및 범죄, 여가 및 대중매체이용
국제연합사회 개발연구소 (UNRISD)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Living and Welfare	영양, 주거, 보건, 교육, 여가, 안전, 환경, 의생활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장수, 교육수준, 생활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Society at a Glance	일반여건, 자급자족,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세계보건기구 (WHO)	WHOQOL	물리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독립성의 정도,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

미국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Campbell(1981)의 「미국의 복지(수준): 최근의 유형과 추세」가 있다. 그는 ‘복지의 조건’이라는 이름 아래 삶의 영역별 관심분야로는 높은 지위의 향유, 결혼상황, 가족과 친구의 소유, 일거리의 소유, 취업여성의 존재, 주거장소, 미국에서의 생활, 수명, 개인의 특성과 자아감각 9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의 전반적 관심분야로서 행복(well-being)과 불행(ill-being)의 3대 요소로 ① 소유의 욕구, ② 관계의 욕구, ③ 존재의 욕구를 제시하며, 이들 세 가지 욕구의 높고 낮음을 측정하였다.

일본은 국민생활의 내용과 변화는 물론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도록 고안된 사회통계와 사회지표로서 사회생활통계지표, 삶의 개혁지수 등을 작성하고 있다. 「사회생활통계지표」(총무성 통계국)는 지역별로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국제연합의 「사회·인구통계체계」를 수용하여 1976년부터 작성하고 있다. 이 사회생활통계지표는 13개 부문(자연환경, 인구·세대, 경제기반, 재정, 학교교육, 노동, 가계, 사회교육·문화·스포츠, 거주환경, 사회보장, 건강·의료, 안전, 생활시간의 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전체, 가계, 개인의 생활을 총망라하여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국민생활통계라고 할 수 있다. 「삶의 개혁지수(LRI : Life Reform Index)」는 국민생활의 관점에서 삶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살펴 구조개혁의 성과를 파악하려는 목적에 따라 신국민생활지표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매년 작성 되고 있다. 삶의 개혁지수는 ① 살기 좋은 사회, ② 일하기 좋은 사회, ③ 배우기 좋은 사회, ④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⑤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 ⑥ 고령자가 활기 있게 사는 사회, ⑦ 정보나 사람의 교류가 활발한 사회, ⑧ 환경 친화적인 사회, ⑨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독일의 사회지표체계는 1970년대 중반 이전에 볼프강(Wolfgang Zapf)의 주도 하에 ‘사회·정치적 결정과 지표’(Socio-political Decision and Indicators)가 개발되었다. 1978년 이후로 이 지표체계는 만하임(Mannheim)에 있는 사회조사연구센터(Center for Survey Research and Methodology)의 사회지표국(Department of Social Indicators)에 의해 계속 갱신·발전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사회지표체계는 13개 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인구,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관적 계급 인식, 노동시장 및 근로생활, 소득 및 소득분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및 소비, 교통, 주택, 교육, 건강, 참여, 환경, 공안 및 범죄, 여가 및 대중매체 이용 등이다. 각각의 영역은 다시 몇 개의 세부영역 및 하위영역으로 구성되고, 총 지표수는 대략 300개 정도이다. 주관적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국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조사를 촉발시켰는데, ‘삶의 질 조사(Quality of Life Survey)’, ‘복지조사(Welfare Survey)’ 및 ‘종합조사(Comprehensive Survey)’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조사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복지조

사(Welfare Survey)’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독일의 사회지표는 객관적 생활의 조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고 개인 복지에 중점을 두며, 정책 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장기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제기관의 삶의 질 관련 연구에는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on Social Development: UNRIS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것들이 있다.

국제연합사회개발연구소(UNRISD)의 지표체계는 사회지표의 개념을 일반적인 복지와 사회적 관심을 동시에 고려한 측정치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복지의 종합지수화를 시도하고 있다(Drenowski, 1970). 삶의 질은 流量(flow)으로서의 생활 수준과 貯量(stock)으로서의 복지 수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각각의 구성요소와 지표를 선정하여 계수화하고 이들을 단일지수로 종합화하는 형태로 고안되었다. 생활 수준의 구성요소로는 처음에는 영양,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의 7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후에 ‘의(의류사용)’요소가 추가되고, ‘건강’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혜)’으로 수정되고 ‘환경’은 ‘사회적 환경(사회적 접촉과 레크리에이션)’과 ‘물리적 환경’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는 9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는 27개로 구성되었다.

UNDP는 국가의 부에 대한 제조명과 전통적인 경제발전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 등에 관한 각국의 주요 통계를 이용하여 인간개발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표하였다. 인간개발의 범주를 구성하는 원칙으로는 ① 노동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 ② 경제적, 정치적 참여기회에 대한 형평성, ③ 물적, 인적, 환경적 자원의 세대 간 지속가능성, ④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의 획득 등 5종의 인간개발지수를 개발하였다.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장수, 교육수준, 생활수준 지표에 근거한다. 장수는 평균 수명으로, 교육수준은 성인 문자해득률과 각급 학교에 대한 총 취학률의 합계로, 생활수준은 1인당 실질 GDP로 측정된다. 개발도상국 인간빈곤지수(HPI-1, Human Poverty Index for developing countries)는 신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하지 못할 확률, 성인 문맹률, 생활수준(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 저 체중 어린이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OECD국가 인간빈곤지수(HPI-2, Human Poverty Index for selected OECD countries)는 신생아가 60세까지 생존하지 못할 확률, 기능적 문자 해득기술이 부족한 성인의 비율, 빈곤선 이하 인구의 비율, 1년 이상의 장기 실업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성 관련 개발 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지만 각 국가의 평균수명, 교육수준, 평균소득을 여성과 남성

의 차이에 따라 조정한다. 여성권한신장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변수를 사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지표체계(Society at a Glance)는 성장 자체보다는 성장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사회지표개발계획(Social Indicator Development Programme)이 시작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1972년에 복지(well-being)를 구성하는 주관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를 거쳐 1973년에는 사회적 목표를 표준화하여 정의하고 가장 필요한 지표를 체계화하고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한 결과를 보고서(OECD, 1973)로 발간하였다. 격년으로 발간되며, 5개 범주(일반여건, 자급자족,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로 구분된다.

1991/1992기간 제네바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관 하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삶의 질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일련의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삶의 질’을 ‘자신들의 문화 및 가치체계의 관점과 그들의 목표, 기대, 표준 및 관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위치)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삶의 질에 대한 광의적인 접근이며 개인의 육체적 건강, 정신상태, 독립 정도, 사회적 관계, 신뢰 및 환경과의 관계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는 삶의 질은 문화적, 사회적 및 환경적 부문에 내재되어 있는 주관적 평가를 뜻한다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지표체계는 6가지 영역(물리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독립성의 정도,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보건측면을 강조하는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체계라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는 100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되고, 간편 척도(WHOQOL-BREF)는 26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1970년대 들어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생활수준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기관도 각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삶의 질에 관한 각종 지표체계를 개발·제시하였다. 국가마다 시도하는 목적과 관점에 따라 관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삶의 질 지표체계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건강, 교육, 취업, 주거, 여가, 소득 부문은 삶의 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관심영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기존의 지표체계들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표들은 대부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도·농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농촌주민의 삶

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이론과 경험을 참고하되, 우리의 목적에 적합한 지표체계를 수립하여 관련지표들을 작성하고 지수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3. 삶의 질 지표의 종류

삶의 질 지표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다. 먼저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는 외부의 원천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한다. 사회에 실존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는 것이다. 객관적 지표는 사건, 행위, 존재, 현상 등의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판단이 적용되고, 조사의 오차가 없고 답변의 진실성이 전제된다면 같은 지표로 측정한 다른 조사의 결과가 같아질 확률이 높은 특성이 있다. 객관적 지표의 장점으로는 측정이 용이하고, 경비가 저렴하고, 자료 확보가 쉽고, 여러 비교대상끼리 횡단 비교분석이 용이하고, 시계열적인 추세 파악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소망·가치와 별개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 지표상의 진전이 반드시 사람들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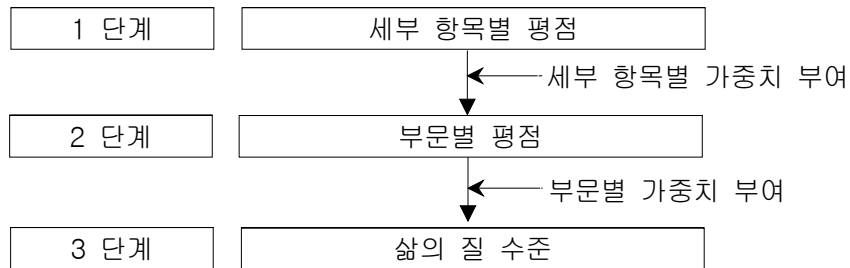
주관적 지표는 개인의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 상태를 측정한다. 주관적 지표는 개인의 생활경험과 주관적 지각에서 오는 복지, 만족, 행복 등을 평가하고 기술하는 것으로 생활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삶의 조건을 측정한다. 주관적 지표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의 목적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기에 각 지표에 대한 판단 시에 임의성을 적용하며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개인의 느낌과 주관적인 인지나 인식을 지표화한 것으로 조사자나 조사상황에 따라 지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주관적 지표의 장점은 개인의 가치나 내면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고, 다차원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종합 지수화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주관적 상태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개인의 심리 상태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지표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계열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4.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법

지표 지수화는 일반적으로 ‘삶의 질’과 같이 많은 항목들로 구성된 대상을 평가할

경우 종합적 수준보다는 그 개별 구성요소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즉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부문별 및 종합적인 지수를 도출한다<그림 1>.

그림 1. 삶의 질 지표 지수화 기본 절차



한편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 산출 방법으로는 동일 가중치 부여법, 지표 선택법, 순위 부여법, 가중서열화 기법,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다 변인 분석기법 등이 있다. 동일 가중치 부여법은 모든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지표 선택법은 제시된 지표간의 가중치를 구할 때 사용되는데 설문 응답자에게 모든 지표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를 몇개만 골라서 순위별로 쓰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표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하다. 순위 부여법은 지표 선택법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하여 순위를 매기도록 하지만 지표수가 적어 모든 지표에 대해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가중서열화 기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를 두 가지씩 묶어서 중요한 어느 하나에는 1점, 다른 하나에는 0점을 주는(이때 중요도가 같을 경우 0.5점도 줄 수 있음) 방식으로 이를 모든 지표 쌍에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총합을 구하고 이를 다시 총점을 1로 했을 경우로 환산한다.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은 각 지표들을 쌍으로 묶은 뒤 몇 단계 척도자의 양극에 위치시킨 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중요한 정도를 척도자(전문가)에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은 가중서열화 기법을 좀 더 발전시킨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문제가 다수의 평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평가 기준들을 계층화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weight)를 설정하는 다 기준 의사결정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다 변인 분석기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인분석법(주성분 분석법), 회귀분석법 등이 있다. 요인분석법은 개별 지표 값들의 분산에 의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회귀분석은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회귀계수를 가중치로 삼는 방법이다. 한편, 표준화 점수로 환산된 개별지표들을 단순 합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삼고, 동시에 전체 지표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 값을 모두 요인점수로 환산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삼아서 회귀분석을 한 다음 그 표준화된 회귀계수들을 요인점수의 합산에 가중치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연구 방법

3.1. 삶의 질 지표 개발

이 연구에서는 통계청(2005)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의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박대식·최경환(2002)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박대식 등(2004)의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등을 종합하여 삶의 질을 13개 부문(중분류)으로 구분하여

표 3. 삶의 질 영역별 만족도 지표

삶의 질 영역		삶의 질 특별법상 분류	삶의 질 지표
대분류	중분류		
경제적 삶	소득·소비	복지	소득
	노동		소비
건강한 삶	보건의료		직업
			건강
안전한 삶	안전		의료서비스
			안전
편리한 삶	주거	지역개발	기초생활여건
	정보화		주택
	교통		정보·통신여건
쾌적한 삶	환경		대중교통여건
			생활환경의 쾌적성
안정된 삶	교육	교육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학교교육기회
	복지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 복지
즐거는 삶	사회참여	지역개발	이웃관계
	일상생활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		문화·여가시설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삶의 질을 3개의 대분류체계(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및 복합산업 활성화)로 나누었다. 그리고 삶의 질의 13개 중분류 영역(소득 및 소비, 노동, 보건의료, 안전, 주거, 정보화, 교통, 환경,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여가, 사회참여, 일상생활)별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1~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¹.

3.2. 전문가 의견조사

삶의 질 지표의 가중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삶의 질 각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절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부여하였다.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는 “삶의 질 13개 부문(소득 및 소비, 노동, 보건의료, 안전, 주거, 정보화, 교통, 환경, 사회복지, 교육, 문화 및 여가, 사회참여, 일상생활) 중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40명의 전문가²들의 응답에 근거하여 해당 지표를 연계하였다. 각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순위 외’ 1점을 부여하였다. 각 지표의 절대적 중요도는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각 지표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을 척도(‘아주 중요’ 5점, ‘대체로 중요’ 4점, ‘보통’ 3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로 측정하였다.

3.3. 가중치 계산

삶의 질에 대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절대적 중요도 평가치와 상대적 평가치를 곱한 값의 합을 총 삶의 질 지표수(19)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공식1>.

¹ 자세한 삶의 질 지표 개발과정은 박대식 외(2002 및 2005)의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² 전문가들의 전공구성은 사회복지학 4명, (농촌)사회학 7명, (농업)경제학 4명, 여성학 또는 가정학 3명, (농업)교육학 7명, 도시·지역계획학 6명, 행정학 및 기타 9명이었음.

공식1. 삶의 질 지표별 가중치 계산 공식

$$WQL_j = \frac{\sum (AI_j \times RI_j)}{n}$$

WQLj = j번째 삶의 질 지표의 가중치

AIj = j번째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절대적 중요도 평가

RIj = j번째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n = 총 삶의 질 지표수

3.4.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삶의 질 지수는 각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항목에 대한 주민들의 평균 점수에 각 지표의 가중치 값을 곱한 후 지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정하기 위해 환산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공식2>.

공식 2. 삶의 질 지표 지수화 공식

$$TQL = MOD \times \sum (WQL_j \times (MQL_j - 1))$$

WQLj: j번째 삶의 질 지표의 가중치

MQLj: j번째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평균

MQLj-1: j번째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점수(5점만점)을 4점 만점으로 보정하기 위한 환산치³

MOD: 각 지표의 지수 만점(4점)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환산치(25)

3.5. 타당성 검토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삶의 질 지표별 가중치 부여 및 지수화를 통해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다른 가중치 부여방식(요

³ 각 만족도의 이론적 범위는 최소 1, 최대 5인데 이를 최소 0, 최대 4로 교정함으로써 삶의 질 지수 총점을 100점 환산 시 이론적 평균값 50(삶의 질 보통)을 기준으로 삶의 질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보정과정이다.

인분석법)과의 결과 비교를 통해 삶의 질 지수화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설문조사의 전체 표본수는 2000가구(도시 600가구, 농촌 1400가구)였고, 모집단은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6일까지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조사 자료의 처리 및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2.0을 사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 판단 결과에 따르면<표 4>, 상대적 중요도는 ‘소

표 4. 전문가들의 각 지표에 대한 중요도 판단

삶의 질 지표		상대적 중요도 ^a	절대적 중요도 ^b
소득·소비	소득	4.700	4.550
	소비	4.700	4.100
노동	직업	1.375	4.200
보건의료	건강	2.500	4.275
	의료서비스	2.500	4.125
안전	안전	1.125	3.625
주거	기초생활여건	1.875	3.925
	주택	1.875	3.850
정보화	정보·통신여건	1.025	3.575
통신	대중교통여건	1.075	3.897
환경	생활환경의 쾌적성	1.250	4.050
교육	교육서비스	2.325	4.375
	사회교육기회	2.325	3.600
	학교교육기회	2.325	4.225
복지	사회복지서비스	1.975	4.275
	전반적 복지	1.975	4.050
사회	이웃관계	1.000	3.375
	가정생활	1.200	3.675
문화/여가	문화·여가시설	1.575	3.925

a. 각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순위 외’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에 평균을 구함.

b. 각 지표에 대한 절대적 중요도는 ‘아주 중요’ 5점, ‘대체로 중요’ 4점, ‘보통’ 3점, ‘별로 중요하지 않음’ 2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후에 평균을 구함.

득'과 '소비'가 4.700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이웃관계'(1.000), '정보통신여건'(1.025), '대중교통여건'(1.075) 순으로 낮았다. 절대적 중요도는 '소득'(4.550), '교육서비스'(4.375), '건강'(4.275), '사회복지서비스'(4.275)가 높고, '정보통신여건'(3.575)과 '이웃관계'(3.37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4.2. 삶의 질 지표별 가중치

<그림 2>의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각 삶의 질 지표의 가중치는 소득(0.1355), 소비(0.1221), 건강(0.0677), 의료서비스(0.0654), 교육서비스(0.0645), 학교교육기회(0.0623), 사회복지서비스(0.0535)의 순으로 높았다<표 5>.

표 5. 삶의 질 지표의 가중치

삶의 질 지표	가중치
소득	0.1355
소비	0.1221
직업	0.0366
건강	0.0677
의료서비스	0.0654
안전	0.0258
기초생활여건	0.0466
주택	0.0458
정보·통신여건	0.0232
대중교통여건	0.0266
생활환경의 쾌적성	0.0321
교육서비스	0.0645
사회교육기회	0.0530
학교교육기회	0.0623
사회복지서비스	0.0535
전반적 복지	0.0507
이웃관계	0.0214
가정생활	0.0280
문화·여가시설	0.0392
계	1

4.3. 삶의 질 지수화

<표 6>은 우리나라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총점을 보면 전체는 58.020이었는데, 도시는 60.632으로 이론적 평균(57)보다 다소 높았지만, 농촌은 56.901로 이론적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지표별 순위는 이웃관계 만족도(3.605), 가정생활 만족도(3.508), 쾌적성 만족도(3.393), 정보통신여건 만족도(3.374), 안전수준 만족도(3.309)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민의 경우 정보통신여건 만족도(3.663), 가정생활 만족도(3.625), 이웃관계 만족도(3.343) 순으로, 농촌의 경우는 이웃관계 만족도(3.716), 쾌적성 만족도(3.504), 가정생활 만족도(3.458) 순으로 삶의 질 만족도 지표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삶의 질 지표	전체(N=2000)		도시(N=600)		농촌(N=1400)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득	2.756	0.855	2.938	0.858	2.678	0.843
소비	2.849	0.807	2.975	0.816	2.794	0.798
직업	2.962	0.852	3.168	0.873	2.873	0.828
건강	3.169	0.848	3.300	0.835	3.112	0.847
의료서비스	3.170	0.815	3.280	0.797	3.123	0.818
안전	3.309	0.838	3.213	0.873	3.349	0.820
기초생활여건	3.211	0.858	3.243	0.828	3.197	0.871
주택	3.290	0.822	3.150	0.836	3.350	0.809
정보·통신여건	3.374	0.822	3.663	0.794	3.249	0.803
대중교통여건	2.866	0.941	3.302	0.979	2.679	0.859
생활환경의 쾌적성	3.393	0.867	3.133	0.931	3.504	0.813
교육서비스	2.871	0.886	3.155	0.881	2.749	0.860
사회교육기회	2.704	0.893	2.983	0.847	2.584	0.885
학교교육기회	2.790	0.885	3.107	0.829	2.654	0.874
사회복지서비스	2.708	0.932	2.932	0.823	2.611	0.959
전반적 복지	2.781	0.820	3.023	0.796	2.676	0.808
이웃관계	3.605	0.741	3.343	0.735	3.716	0.715
가정생활	3.508	0.751	3.625	0.805	3.458	0.721
문화·여가시설	2.709	0.901	3.097	0.901	2.543	0.849
총 점	58.020	9.661	60.632	9.858	56.901	9.358

*문항별 반응 범위: 1(매우 불만족하다)~5(매우 만족하다)

*총점의 이론적 범위: 19~95, 총점의 이론적 평균: 57

<표 7>에는 <그림 3>의 삶의 질 지표 지수화 공식에 따라 삶의 질 만족도 조사결과를 환산한 삶의 질 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지수는 49.260이고, 삶의 질 지수에서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12.07%), 소비(11.46%), 건강(7.45%), 의료서비스(7.20%), 교육서비스(6.12%), 학교교육기회(5.66%), 주택(5.32%) 등의 순으로 높았다. 도시 주민의 삶의 질 지수는 53.167이고,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12.35%), 소비(11.34%), 건강(7.32%), 의료서비스(7.01%), 교육서비스(6.54%), 학교교육기회(6.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는 47.576으로,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11.95%), 소비(11.51%), 건강(7.51%), 의료서비스(7.30%), 교육서비스(5.93%), 주택(5.66%), 학교교육기회(5.41%)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7. 삶의 질 지수

삶의 질 지표	전체 주민	도시 주민	농촌주민
소득	5.948 (12.07)	6.565 (12.35)	5.684 (11.95)
소비	5.644 (11.46)	6.029 (11.34)	5.476 (11.51)
직업	1.795 (3.64)	1.984 (3.73)	1.714 (3.60)
건강	3.671 (7.45)	3.893 (7.32)	3.575 (7.51)
의료서비스	3.548 (7.20)	3.728 (7.01)	3.471 (7.30)
안전	1.489 (3.02)	1.427 (2.68)	1.515 (3.18)
기초생활여건	2.576 (5.23)	2.613 (4.91)	2.560 (5.38)
주택	2.622 (5.32)	2.462 (4.63)	2.691 (5.66)
정보·통신여건	1.377 (2.80)	1.545 (2.91)	1.304 (2.74)
대중교통여건	1.241 (2.52)	1.531 (2.88)	1.117 (2.35)
생활환경의 쾌적성	1.920 (3.90)	1.712 (3.22)	2.009 (4.22)
교육서비스	3.017 (6.12)	3.475 (6.54)	2.820 (5.93)
사회교육기회	2.258 (4.58)	2.627 (4.94)	2.099 (4.41)
학교교육기회	2.788 (5.66)	3.282 (6.17)	2.576 (5.41)
사회복지서비스	2.284 (4.64)	2.584 (4.86)	2.155 (4.53)
전반적 복지	2.257 (4.58)	2.564 (4.82)	2.124 (4.46)
이웃관계	1.394 (2.83)	1.254 (2.36)	1.453 (3.05)
가정생활	1.756 (3.56)	1.837 (3.46)	1.721 (3.62)
문화·여가시설	1.675 (3.40)	2.055 (3.87)	1.512 (3.18)
계	49.260 (100.0)	53.167 (100.0)	47.576 (100.0)

* ()은 전체 지수에서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

4.4. 삶의 질 지수의 타당성 점검

전문가 의견에 근거한 가중치 부여 방식 외에 주민조사에 근거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지표에 걸린 부하값으로 가중치를 구하여 환산한 삶의 질 지수 값을 이용하여 삶의 질 지수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삶의 질 지표를 주성분 분석을 적용시켜 가중치를 구하여 삶의 질 지수를 계산한 결과, 삶의 질 지수(19개 지표 적용)는 전체 50.7859, 도시 54.260, 농촌 49.285로 나타났다. 앞에서 제시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구하여 계산한 삶의 질 지수(전체 49.261, 도시 53.167, 농촌 47.576)와 상당히 유사하여, 이 연구에서 구명한 삶의 질 지수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표 8.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계산된 삶의 질 지표별 가중치와 지수

삶의 질 지표	가중치	삶의 질 지수		
		전체 주민	도시 주민	농촌 주민
소득	0.062	2.722 (5.36)	3.004 (5.54)	2.601 (5.28)
소비	0.062	2.866 (5.64)	3.061 (5.64)	2.781 (5.64)
직업	0.053	2.600 (5.12)	2.873 (5.29)	2.482 (5.04)
건강	0.042	2.277 (4.48)	2.415 (4.45)	2.218 (4.50)
의료서비스	0.053	2.875 (5.66)	3.021 (5.57)	2.813 (5.71)
안전	0.050	2.886 (5.68)	2.766 (5.10)	2.936 (5.96)
기초생활여건	0.054	2.985 (5.88)	3.028 (5.58)	2.966 (6.02)
주택	0.056	3.206 (6.31)	3.01 (5.55)	3.29 (6.68)
정보·통신여건	0.039	2.315 (4.56)	2.596 (4.78)	2.193 (4.45)
대중교통여건	0.049	2.286 (4.50)	2.82 (5.20)	2.057 (4.17)
생활환경의 쾌적성	0.044	2.632 (5.18)	2.346 (4.32)	2.754 (5.59)
교육서비스	0.057	2.666 (5.25)	3.071 (5.66)	2.492 (5.06)
사회교육기회	0.059	2.513 (4.95)	2.925 (5.39)	2.336 (4.74)
학교교육기회	0.060	2.685 (5.29)	3.161 (5.83)	2.481 (5.03)
사회복지서비스	0.056	2.391 (4.71)	2.705 (4.99)	2.255 (4.58)
전반적 복지	0.052	2.315 (4.56)	2.63 (4.85)	2.179 (4.42)
이웃관계	0.056	3.647 (7.18)	3.28 (6.04)	3.802 (7.71)
가정생활	0.043	2.696 (5.31)	2.822 (5.20)	2.642 (5.36)
문화·여가시설	0.052	2.222 (4.38)	2.726 (5.02)	2.006 (4.07)
계	1	50.785 (100.0)	54.26 (100.0)	49.284 (100.0)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별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19개(소득, 소비, 직업,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기초생활여건, 주택, 정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생활환경의 쾌적성,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학교교육기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 복지, 이웃관계, 가정생활, 문화·여가시설) 삶의 질 지표가 도출되었고, 40여명의 관련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지표별 가중치를 구명하였다.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2005년도의 삶의 질 지수(전체)는 49.260으로 나타났으며, 농촌(47.576)은 도시(53.167)에 비해서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연구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자료의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현재, 객관적 삶의 질 지표는 이용 가능한 자료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는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으나 그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삶의 질 지표와 직접 연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여 삶의 질 만족도를 지수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통계청과 농림부 등이 협조하여 객관적 삶의 질 지표 관련 자료를 좀 더 확충하고 주관적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삶의 질 지수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 지표 및 지수의 중장기적 생산 및 관리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매년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 관련 사회조사를 삶의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지표의 지수화 작업에 초점을 둬으로써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삶의 질 실태조사’를 ‘정기 총 조사’라고 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삶의 질 만족도 조사’는 ‘간이조사’라고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5년 단위의 ‘정기 총 조사’는 조사문항을 어느 정도 늘리되 조사내용을 2개 부분으로 나누어(예를 들면, 상반기·하반기)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지표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생산·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분석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의 관련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담당자도 자주 바뀌는 바람에 삶의 질 지표 관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사회조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회조사(특히 주민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위탁하여 생산하되, 사회조사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 및 관리는 관련 전문 연구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도시·농촌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유형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농촌관련 조사에 의하면 농촌과 도시간의 차이도 심각하지만, 농촌내부의 지역간 차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삶의 질 지수에서도 농촌지역이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부는 통계청, 농촌진흥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삶의 질 지표뿐만 아니라 농촌의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을 도시와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매년 국가적으로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변인에 따라 제대로 조사결과가 분석·정리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루어지는 통계조사는 물론이고, 과거에 이루어진 통계조사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동일, 심재웅, 유철인. 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균 외. 1996. “삶의 질을 위한 지표 설정과 한국의 위상.” 「정책논단」 제3권 제1호. 외교문제연구원.
- 김제국 외. 2000.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2005 농촌생활지표 조사보고서」.
- 미디어리서치. 2004. 농림부.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등 조사」.
- 민성길 외 4인.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 형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 박대식, 이영대. 1997. 「농촌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3인.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외 5인.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승희. 2002.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7(2): 53-93.
- 소진광. 1998. “「삶의 질」 개념과 도시정책적 함의.” 「지역사회개발연구」 23(1): 65-84.
-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 26-47.
- 안지민, 최외출. 2001. “자치단체의 삶의 질 비교평가.”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1(1): 1-27.
- 윤혜미, 김환준, 강혜규. 1990. 「사회복지지표의 체계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동필 외 6인,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균. 1997. “「삶의 질」 측정지표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집,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 이재기, 이은우, 김재홍. 1998. 「삶의 질의 국제비교와 지역 간 비교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6집. 집문당.
- 이현송. 1997. “한국인의 삶의 질 : 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호): 269-301.
- 이현송. 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임경수, 김재익. 1998. “수도권 신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 7-27.
- 임희섭. 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장봉규. 1996. “삶의 질: 개념과 측정.”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4(1): 25-39.
- 정명숙. 2005.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87-108.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48집. 집문당.
- 조홍식, 김태성, 남기철. 2001. 「농촌지역 사회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중앙일보사. 1995. 「전국 74개市 비교평가 자료집: “삶의 질” 입체분석」.
- 최태룡. 1998. “삶의 질 지표 분석.” 「사회과학연구」 16(3): 47-68.
-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및 (II)」.
- 하재구. 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행정문제논집」 7: 285-361.
- 하혜수. 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03. 「농가 경제·사회·복지실태조사 보고서: 소농가를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I, II)」.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한국인의 삶의 질 : 현황과 정책과제」.
- Campbell, Angus.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
- Marans, Robert W. and D. A. Dillman. 1980.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Rural America*.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 Mukherjee, Ramkrishna. 1989. *The Quality of Life: Valuation in Social Research*. Newbury: Sage

Publications.

- OECD. 1973.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 OECD. 1982. *The OECD List of Social Indicators*.
- Schnei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3): 291-305.
- Schuessler, K. F. and G. 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Sirgy, M. J. 1986. "A Quality-of-Life Theory Derived from Maslow's Developmental Perspective: 'Quality' is Related to Progressive Satisfaction of a Hierarchy of Needs, Lower order and Higher."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5(3): 329-432.
- Sirgy, M. J. and D. R. Rahtz, M. Cicic, R. Underwood.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 279-316.
- Sirgy, M. J. 2002. *Handbook of Quality-of-Life Research: An Ethical Market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Volume 8.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irgy, M. J. and A. C. Michalos, A. L. Ferriss, R. A. Easterlin, D. Patrick, W. Pavot. 2006. "The Quality-Of-Life(QOL) Research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76: 343-466.
-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Census. 1980.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 Ventegodt, S. and T. Flensburg-Madsen, N. Andersen, M. Nielsen, M. Mohammed, J. Merrick. 2005. "Global Quality of Life(QOL), Health and Ability Are Primarily Determined by Our Consciousness Research findings from Denmark 1991-2004." *Social Indicators Research* 71: 87-122.

원고 접수일: 2007년 7월 10일 원고 심사일: 2007년 7월 20일 심사 완료일: 2007년 9월 18일
